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평화의 도구

(제 171 호)

07년 11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이 세홍(바오로),sfo (562)860-6930
 *사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739-4226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11월 4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들과 함께 음식을 제공하여 봉사 하였습니다.

■ 회계 정산

이해도 저물어 갑니다. 07년도 형제회 회계 정산을 위하여 그동안 밀린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부님 방문

오늘 11월 25일(일) 월례회에 김재섭 비안네 신부님께서 방문하여 강의 및 형제회 미사 집전해 주십니다.

■ Rock 회장 방문

오늘 11월 25일(일) 지구형제회에서 Rock 회장께서 오셔서 내년 08년 3월에 있을 평의회원 선거에 대하여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 형제회 점심

지난 10월 월례회 점심은 홍병숙 유리안나 부부 따님 결혼식 축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형제회 사목적 방문

오는 11월 4일(일) 지구형제회에서 형제적/사목적 방문을 하여 평의회원과 형제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방문자: Steven Gross 신부, RockDe Spain 회장, Robert Herbelin 회계, 정희영 리더아, 이현일 어거스틴

■ 신부님 방문 예정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오는 12월 23일(일) 월례회를 방문해 주실 예정입니다

*형제회 총회및 평의회원 선거

08년 3월 16일(일) 셋째 일요일

*OC 형제회 15년사 출판회

08년 4월 27일(일) 네째 일요일

【회원 소개- 13번째】

나는 누구 일까요 ?

저는 50대입니다.

가입한 동기는 평화와 작음의 영성을 따르며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고 싶어 1996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취미와 특기는 여행, 기도 생활, 독서입니다. 성인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복음 실천과 우주만물에 대한 사랑과 보편적인 형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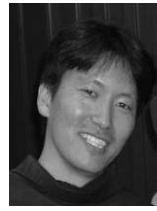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싶기에 나의 희망을 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재속 프란치스코 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였을때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고 내가 형제회 회원들과 함께 동화됨을 느꼈고 작음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형제회에 몸담고 있는 햇수가 길어질수록 나의 마음은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나는 주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 주신 이길을 갈 것이고 현재 만족하며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대로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도 사부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하면서 형제회 회원이 함께 손잡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 선교】

나자렛 예수님의 삶- 잊혀져도 그대로 살고 싶소

김용철 도미니꼬 신부, OFM



오래 전의 일이다.

나자렛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을 한 것은...

왜 성서에는 예수님의 생활이 공생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뿐일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임을..그런데 왜 나자렛에서 오랫동안, 아니 거의 평생을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곳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 그런 묵상을 한 지도 아마도 10여년이 지난 어느 날 이었다.

잊혀진 사람,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그런 삶을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를 원하다. 우리의 옛말처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기다'는 말... 난, 러시아의 어느 시골에 살고 있다. 우수리스크...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도시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삶의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생활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 6년이라는 세월을..

찾아오는 사람없는 곳.,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 다행인 그곳에서의 삶.. 그러나 그곳에 작지만은 않은 복지판을 지었다. 아마도 그곳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무모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현지의 도움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곳.매일 KGB (옛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감시와 경찰들과 마피아들의 시선에서 자유스러울 것이 없는 곳에서의 생활.

그곳에서, 마치 나자렛의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갔듯이, 나 역시 그런 잊혀져 가는 나자렛 예수님의 삶에 더욱 큰 공감이 가듯...사람들 속에서 관심과 잊혀져 가는 이들

에게 시선을 돌리고자, 무숙자들을 위한, 아니 잊혀져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멀어져 가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프란치스칸 복지관 [타우]를 만들었다.

잊혀져 간다는 것..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그것보다 슬픈 것이 있을까?

그러기에 이곳에서도 나자렛 예수님의 삶이 더욱 묵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회원 소개-권효정(마리아) 자매

【영 성】

나병 환자와 성 프란치스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서 멀리 떨어진 밤나무 숲 속에 한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나병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무서운 병이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서 피가 나고 냄새가 심하게 풍겼습니다. 어떤 환자는 손과 발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장님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장님을 인도해 주었고 손이 남아 있는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환자들에게 돈과 음식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나병환자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었지만 한 번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양로원 앞을 지나가게 되면 재빨리 코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아무 생각없이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기에 돌아다보니 양로원 앞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한 환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 이 불쌍한 늙은이에게 뭐라도 좀 주고 가시오!"

프란치스코는 얼른 돈주머니를 꺼내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돈주머니는 환자 앞 먼지 속에 떨어졌습니다.

"고맙소. 착하신 양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천 배로 갚아 주실 것이요."

노인은 돈주머니를 집기 위해 팔을 뻗었으나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뭉그러진 다리를 아주 힘들게 앞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발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리시오."

프란치스코는 말에서 내려 달려가 돈주머니를 집어 들고는 "용서하십시오!" 하며 환자의 손에 직접 쥐어 주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 젊은 양반! 나를 만지면 내 병이 옮을지도 모르요."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미 피가 흐르고 있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고는 말했습니다.

"봉대로 감아야겠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봉대도 없소."

프란치스코는 "오, 하느님!" 하고 부르짖으며 "내일, 내일 제가 다시 와서 당신의 상처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약속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건강한 다리로 말에 올라탔고, 건강한 손으로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새털 모자를

했습니다. 신고 있는 구두는 아마 아씨사에서 가장 좋은 신이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런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말 목덜미에 머리를 파묻고는 울었습니다. 말의 갈기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말은 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양로원 앞을 지나기를 꺼려했었지. 그 상처와 냄새 때문에...'

다음 날 그는 말에다 먹을 것과 치료도구를 신고 양로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그는 피곤한 몸으로 숲 속을 거닐었습니다. 거기서 문이 반쯤 열린 작은 경당을 발견하고는 들어가 흔들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경당은 조용하고 어두침침했습니다. 불빛도 없었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며 양로원에 있는 손발이 없는 노인과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 중 누가 더 비참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프란치스코는 놀란 듯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당신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물을 가져다가 당신을 씻겨 드렸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당신의 상처를 서투르게 치료하고 붕대를 감을 때 몹시 아프셨을텐데도 '고맙다'고 하셨죠. 죽을 데워서 한 손갈씩 떠 넣어드릴 때 당신은 마치 아기가 어머니에게서 받아먹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잡수신 당신은 절더러 '세상 이야기를 들려 달라' 하였고, 저는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했고 유행되고 있는 새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당신은 제게 물으셨지요. '다신 오겠니?' 저는 '그리겠다'고 약속했지요. 내일은 아마 예수님, 당신을 좀더 가까이에서 뵈게 될 거예요..."

【목 상】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 부러워 할 정도의 여유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사는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없지요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에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좋은생각' 중에서)